

# 서울인쇄조합, 2011년도 인쇄경영자 워크숍 및 체육대회 인쇄전자 현황 소개하는 세미나 열어 다채로운 체육행사로 화합 다져

글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남원호)은 지난 9월 17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농협대학 강당 및 운동장에서 2011년도 인쇄경영자 워크숍 및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200여 조합원과 가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대한인쇄문화협회 김남수 회장, 대한인쇄기술협회 김진배 회장, 축구회 노신건 회장 등의 주요 내빈이 참석했다.

개회사를 통해 남원호 이사장은 “수확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가을의 문턱에서 인쇄인들의 화합과 건강을 증진하고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워크숍을 통해서 변화하고 있는 인쇄환경의 흐름을 파악하고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쇄전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바라며, 2부 순서인 체육대회를 부회 중심으로 확대한 만큼 회원 여러분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건강을 다지는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부 순서로 진행된 워크숍은 ‘인쇄전자의 이해와 전망’을 주제로 폐자코리아 이상조 사장이 강의했다. 이 사장은 “인쇄전자는 기존의 인쇄와 완전히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인쇄사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설비를 조금 바꾸고 잉크를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뛰어들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일상에 가까이 다가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쇄전자의 실용적인 적용부분은 스마트 태그, 스마트 패키지, RFID 테크 등이며 인쇄전자는 원가절감, 효율적인 원자재 이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시장 대응이 빠르고 개발이 쉬우며 환경오염이 적고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어 친환경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 축구 등 다양한 경기로 단합 다져

2부 순서로 진행된 체육대회는 각 부회별로 단합을 다질 수 있도록 부회별로 점수를 집계하고 종합우승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축구를 비롯, 피구, 릴레이, 닭싸움 등 다양한 종목으로 경기가 치러졌으며 열띤 경합 끝에 이날 종합우승은 축구에서 우승을 차지한데 힘입은 책자인쇄부회에게 돌아갔다. 전산정보부회는 닭싸움을 비롯한 다른 시합에서 선전해, 축구에서의 3위를 만회하면서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3위는 사무용인쇄부회, 4위는 상업인쇄부회가 각각 차지했다.

이날 행사참가자들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즐거웠으며 실제적이고 업무에 도움이 되는 워크숍이 진행되어 더욱 알차고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

